

어명소 제2차관, “철저한 도로 복구작업 시행” 강조

- 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현장 찾아 복구 상황 점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9일(화) 15시 용인-서울 고속도로 서판교IC 인근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,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보고받고 철저한 보수공사 및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였다.

- 용인-서울 고속도로는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서판교IC(경기 성남) 부근 비탈면이 유실되어,
 - 용인 방향 12.9km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 하였으며,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.

- 어 차관은 “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복구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나,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시일 내에 철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” 을 당부했다.

- 아울러, “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비탈면이 붕괴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, 선제적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,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” 을 지시하였으며,
 - “이번 주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전국 도로 건설·관리 현장에서 수해대응에 철저를 기하고,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” 고 당부하였다.

2022. 8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